



책·철학·행복·행렬도시 군포

군포소식

Gunpo Monthly Magazine

2016

04
제345호

일곱 빛깔 무지개는 세상의 모든 색을 담고 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요즘, 각자만의 빛을 발하며 빛나는
사랑 가득한 다문화가정의 여성 파워를 마음에 담아보자.



02 행복한 군포

'책 읽는 학교' 활성화 위한 넓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 시행

군포시는 지역 특성을 살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통해 모든 학교와 지역이 균
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08 군포 삼매경

문화와 자연이 있는 길
군포 골프장 물레길

도심 속 바쁜 일상에서 잠시 쉬고 싶다면
골프장 물레길을 가보자. 그리고 잠시 고
민은 접어두고 걸어보자.



10 반갑습니다

다문화주부클럽 사진교실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담다

사진으로 100일간 일기를 쓴 다문화주부를
클럽 사진교실 '꿈꾸는 동행' 회원들, 가족의
얼굴을 담은 전시회를 개최했다.



16 건강쑥쑥

봄철 어린이 건강
알레르기 예방하자

봄철 먼지와 황사 질환 예방에 좋은 밀피유
나베, '천 겹의 잎사귀'는 우리 몸을 건강하
게 감싼다.



군포시와 SNS로 친구맺기

페이스북 facebook.com/gunpocity

블로그 blog.naver.com/o2gunpo

트위터 twitter.com/gunpocity

발행일 2016년 4월 1일

발행인 군포시장

발행처 gunpo 군포시 홍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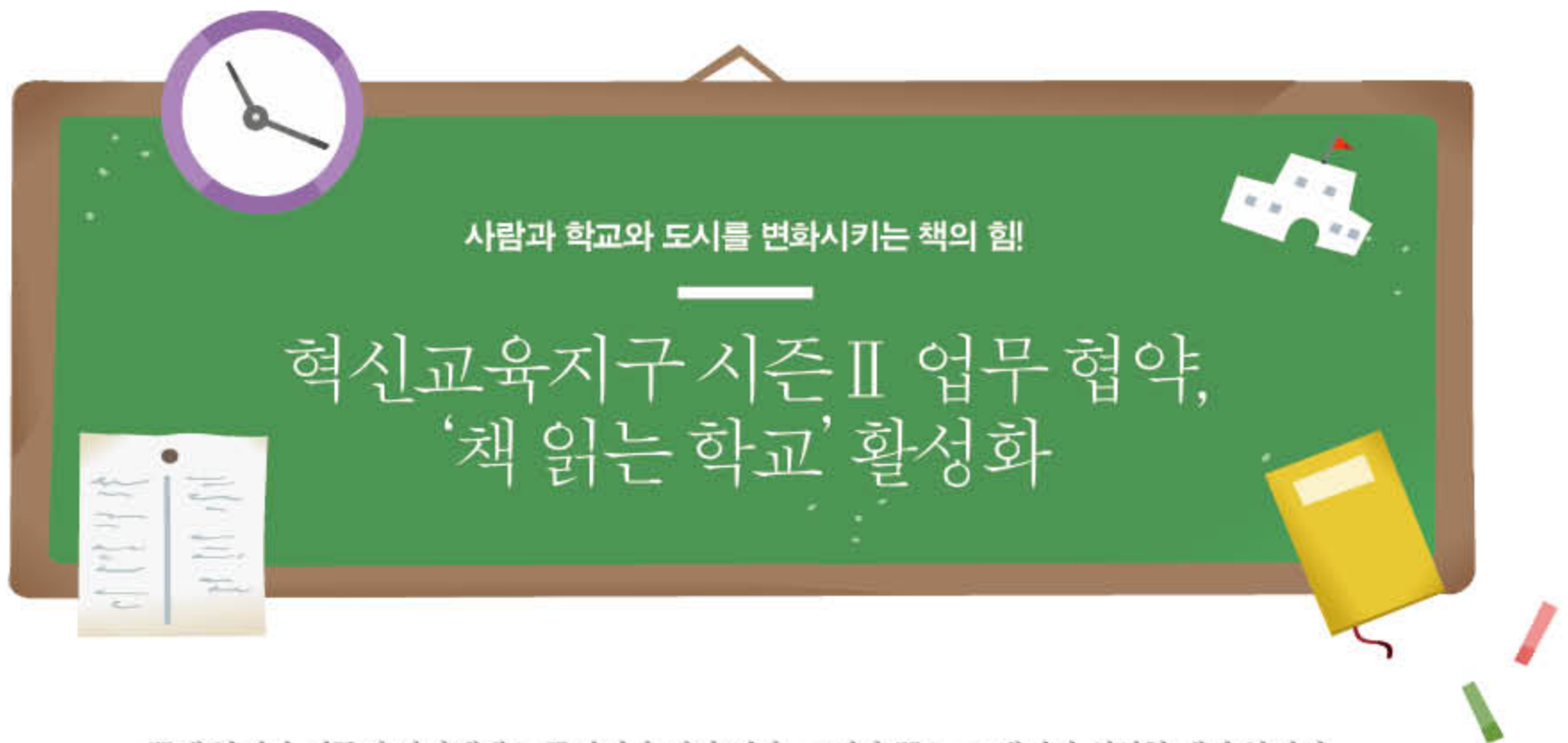
TEL 031-390-0663

FAX 031-390-0069

WEB http://www.gunpo.go.kr

정기구독 신청(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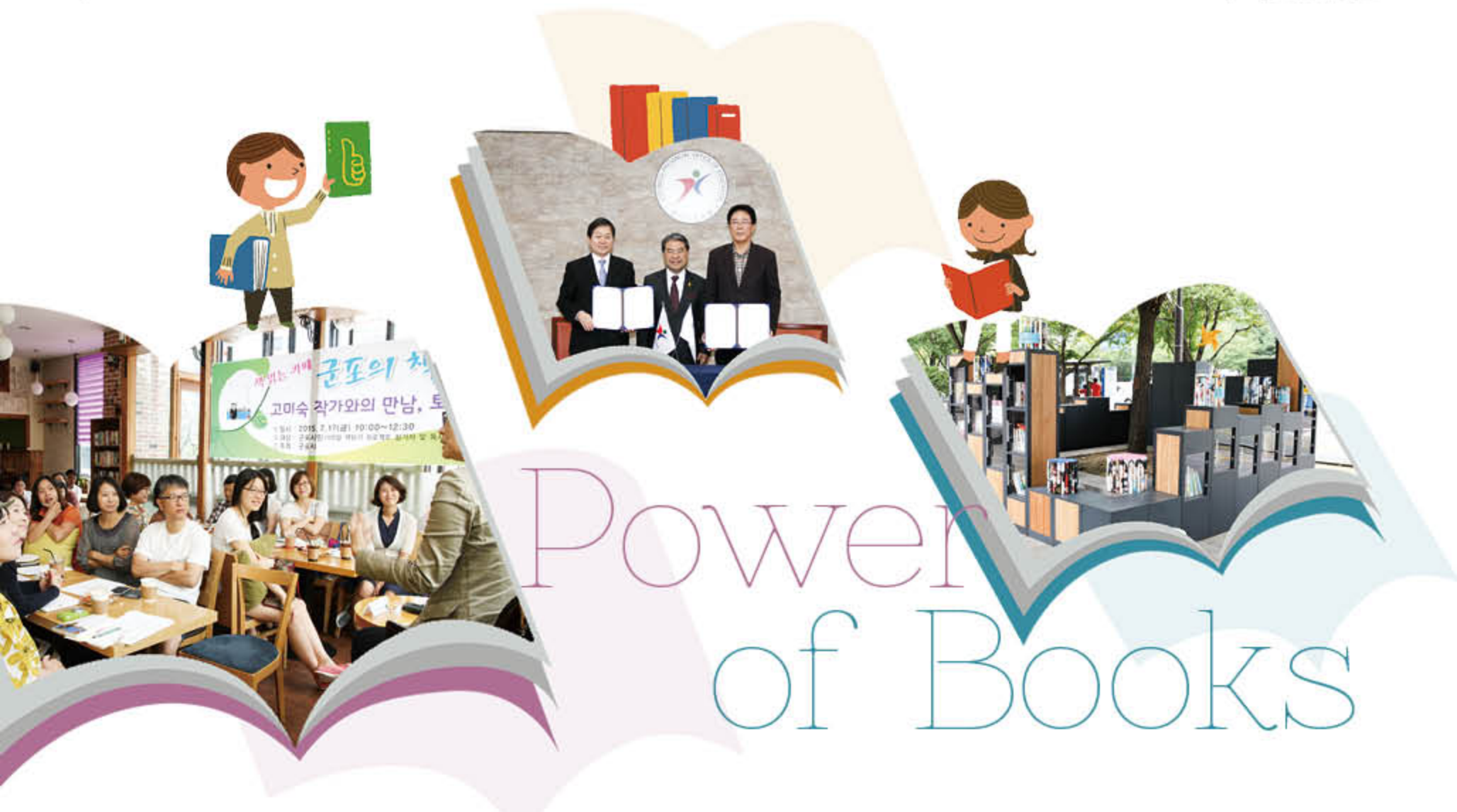
〈군포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홍보실에 전화 신청하세요.



꽃에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품격이란 것이 있다. 그러나 꽃도 그 생명이 싱싱할 때만 향기가 신선하듯이, 사람도 그 마음이 맑지 못하면 품격을 보전하기 어렵다. 썩은 백합꽃은 잡초보다 오히려 냄새가 고약하다. 사람을 조금 더 향기롭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읽'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게 된다. 교육은 늘 새로워야 한다.

글 최미연 사진 군포시청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참여 교육청과 협력, 지역특화교육 추진

군포시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새롭게 참여, ‘책 읽는 학교’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협력하는 지역공동체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업무협약식에 참여,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사업추진을 위한 합의를 작성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시는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책 읽는 학교 활성화라는 주제로 17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Ⅰ은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을 갖춘 교육자원을 개발하고, 교육공동체를 구축해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경기도형 교육협력 사업이었다.

시즌Ⅱ는 여기서 나아가 다양한 교육주체와 협력해 모든 학교와 지역이 균형발전을 하도록 지역별 특성을 더욱 강화해 지속가능 혁신교육 모델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책과 함께 만나다

시는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에 참여하며 세 가지 목표를 세웠다. 첫 번째는 ‘책과 함께 만나다’라는 주제로 ‘책 읽는 학교’ 활성화와 ‘책 읽는 군포’ 연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행복한 군포독서학교’ 모델을 구축해 ‘책나라군포’로의 발전을 추진한다.

‘책 읽는 학교’는 청소년들이 책을 가까이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독서를 통한 전인교육을 실현하고자 ‘릴레이 도서지원’, ‘작가와와의 만남’, ‘독서캠프’ 등 지속가능한 독서사업의 내실을 다진다. 더불어 독서동아리가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을 개발하고, 학생과 시민이 연합한 독서동아리 문화기행 등도 추진한다.

‘책 읽는 군포’ 연계 사업으로는 입시 위주 교육 현실

에서 소홀해진 독서를 장려하고, 청소년들의 인문학적 소양 및 자긍심을 높이고자 ‘청소년 고전인문강독반’ 등을 운영한다. 그 외 청소년 독서골든벨과 글쓰기 교실, 서평 공모, 독서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사회까지 독서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행복한 군포독서학교’ 모델로는 독서 명예의 전당이 나 호기심 독서천국, 나도 작가 콘서트 등과 같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 1독서교육 브랜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책과 함께 다지다

시의 두 번째 목표는 ‘책과 함께 다지다’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 문화, 여가,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의 성장을 돕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청소년복합문화도시’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청소년복합문화도시를 마을단위의 학습공동체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가족 단위 문화 체험과 소통의 장을 확대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의 토대다. 또 시는 학교와 연계해 ‘평생학습 어울림콘서트’와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 찾아가는 생활과학 교실과 과학캠프 등의 사업으로 청소년 과학 및 예술문화를 육성할 계획이다. 청소년이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제공을 위해 ‘청소년문화존’도 확대한다. 다양한 계층이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 조화로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자연환경을 이용한 ‘책이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책과 문화가 공존하는 책의 거리와 책 은행 사이트 구축 및 책 체험관 등을 운영하며 혁신교육지구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한편으로 시는 ‘교사가 책이다’라는 교원 역량 강화 프로젝트로 교원들의 독서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고, 독

서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는 연구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독서교과 연구회와 교원독서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며, 학교관리자 독서마인드 함양을 위한 특강 등을 실시하면 교사의 자발적 독서연구와 전문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책과 함께 어울리다

세 번째 과제 ‘책과 함께 어울리다’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이 목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학교, 청소년 전용 카페 ‘TEEN터’와 마을교육공동체 ‘꿈의 학교’ 운영 지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또 ‘교육협력지원센터’를 구축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공동사업도 추진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학교와 지역 간 정보 공유 및 연계지도를 위한 사업이다. 이 센터에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군포교육주만참여협의회, 군포시 교육협력팀이 모여 교육자원 매칭시스템 구축과 지역 교육인프라 발굴 및 사회적 배움터 구축 등을 전담하게 된다. 매년 가을 열리는 군포 독서대전 기간에는 마을과 함께하는 소문잔치(소통과 문화잔치)도 개최해 책과 청소년 시민사회가 어울리는 문화도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통해 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꿈을 실현하는 미래인재로 성장하고, 학교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활동 중심의 실천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참여로 다양한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탄탄한 지역교육 인프라의 힘으로 유망한 지역 인재가 많이 양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직접적으로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발전과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고, 궁극적으로는 ‘책나라군포’의 정체성 확립에 그 목적이 있으니 성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390-0784



철쭉으로 물들이다

'2016 책나라군포 철쭉축제' 4월 29일~5월 3일

진분홍의 꽃잎이 화사하게 함박웃을 짓듯 피어나는 봄이다. 나지막한 자세로 피어 사람들의 차가웠던 마음을 간질이며 행복한 웃음을 선사한다. '사랑의 즐거움'이라는 철쭉의 꽃말처럼 피어나는 사랑이 군포시를 물들이고, 시민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봄의 전령이 선명한 철쭉을 보며 '2016 책나라군포 철쭉축제'에 미리 가보자.

글 편집실 사진 군포시청



축제사무국 개소로 축제준비 만전

군포시가 주최하고, 군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16 책나라군포 철쭉축제'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문화재단에 따르면 '2016 책나라군포 철쭉축제'는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 동안 군포시 전역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번 축제는 그동안 산본신도심 지역 위주로 프로그램이 편성됐던 것과 달리 군포역전시장, 당정근린공원 등 구도심지역으로 행사를 분산, 더 많은 사람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진행된다. 또 시가 '책 읽는 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철쭉의 아름다움과 책의 인문학적 정신이 어우러지는 축제를 만들고자 축제 명칭을 '철쭉대축제'에서 '책나라군포 철쭉축제'로 변경했다.

앞서 문화재단은 2월 24일 군포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축제사무국 개소식을 갖고,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다짐했다.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축제

29일 개막할 '2016 책나라군포 철쭉축제'의 첫 행사 퍼레이드는 군포시문화예술회관에서 시작해 시민체육광장까지 진행된다. 또 시민체육광장에서는 오후 7시부터 영혼을 울리는 가수 '적우'와 걸그룹 '마마무'가 장식할 개막 축하 공연이 개최돼 축제의 즐거움을 나눈다.

30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철쭉동산에서 퍼포먼스 공연이 펼쳐진다. 또 오후 2시부터는 밴드 공연과 국악, 마임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 무대가 꾸며진다. 오후 7시에는 북콘서트가 예정돼 있다.

5월 1일에는 전문가 무용 공연 등 한층 품격 있는 축제를 즐길 수 있고, 마지막 날인 2일에는 군포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음악으로 봄밤을 달래며 축제가 막을 내린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직접 공연하고 작품을 전시하는 진정한 '시민참여형' 행사, 모두가 주인공 축제를 만들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 책나라군포 철쭉축제 사무국 390-3551



한 눈에 보는 군포

군포역 앞 광장 '사람 모이는 명소'로

군포시는 지난 2월 전철 1호선 군포역 앞 광장을 '사람이 모이는 명소'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이하 행정복지센터) 주관으로 군포역 앞 광장 정비 공사를 추진,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5월 전에 마무리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이 사업으로 시는 군포역을 이용하는 시민 및 방문객들의 편의가 더욱 향상되고, 군포역 광장이 만남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군포역 광장과 인접한 전통시장인 군포역 전시장 전 출입 통로가 더 찾기 쉬워져 지역상권 활성화도 예상된다. 시는 설명했다.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390-3637

"봄철 산행 군포로 오세요~"

군포시는 산행 등 봄나들이가 본격적으로 성행하기 전 수리산 등산로를 정비 중이다.

이를 위해 김윤주 시장은 간부 공무원, 실무 담당자 10여명과 지난달 초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임도오거리를 거쳐 납덕골까지 5.67km의 등산로를 점검했다. 김 시장 등은 이날 등산로 계단과 안전로프 상태, 안내표지판과 편의 시설(의자, 운동기구)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삼림훼손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산로 폐쇄 여부도 논의했다.

한편 시는 3월부터 밤바위정~능내정(시민체육광장 위~능내터널 위) 구간 등산로 정비를 시작했다. 해당 구간의 위험 요소 제거와 안전도 향상을 위한 것으로 식생매트 포장, 목재데크계단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사로 등산객의 편의가 높아지고, 해빙기 안전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원녹지과 390-0435

위험할 땐 신변안전부스에서 도움 요청!

군포경찰서는 KT링거스의 도움을 받아 군포역, 금정역, 산본시장, 자유문고, 군포시청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의 공중전화 부스를 개조해 신변안전부스로 만들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해소와 긴급 상황으로부터 여성 아동 등 치안 약자의 피난처를 설치, 안전한 군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만약 해당 지역에서 신변에 위협을 받는데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신변안전부스로 대피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변안전부스는 범죄 위협을 받아 대피한 시민이 시설 내 빨간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문이 닫혀 외부와 차단된다. 또 부스에 설치된 사이렌이 울리고 경광등이 작동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여성청소년과 390-9348

생활임금 조례안 제정 등 10건의 조례 재·개정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등 안건 처리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가 3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열렸다.

이번 임시회의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시의회는 군포시 생활임금조례안(이전행 의원 대표 발의)을 제정하고,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를 개정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예결특위에서는 2016년 예산규모 기정예산 대비 367억7천7백만원이 증액된 5천792억2천9백만원의 추경예산을 의결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1억2천5백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16억5천2백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가 72억7천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4억5천5백만원이 증액됐다.

한편 김동별 의원은 “시의회는 집행부가 2016년을 맞아 도시 브랜드 가치 확립,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 복지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 구현을 최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Interview

[성복임 의원 인터뷰]

메니페스토 약속대상·에너지시민연대 감사패 수상 “생활정치, 정책토론회로 시민과 함께할 것”



지난 1월, 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원이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15 지방의원 메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분야에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랜 기간 시민운동에 몸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추진 등 시민과 소통하는 활발한 생활 의정을 실천해왔다. 특히 시민과 행정,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 지방의원 메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게 됐다.

평소 성 의원은 주민소통을 위해 주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율방범대 등에 참여해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의정을 펼친다. 일례로 그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예산 편성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성 의원은 “부곡동을 대상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적 있는데,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거리에 심을 나무와 꽃의 종류를 직접 주민 투표로 정하게 됐죠”라며 “실제로 생활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애정을 갖고 더 잘 관리하게 되죠”라고 말했다.

한편 성복임 의원은 3월 초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2016 에너지시민연대 대표자회의'에서도 에너지시민연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성 의원이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위한 운동을 활발히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성 의원은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에너지절약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울곡, 가야, 부곡휴먼시아 아파트와 협약을 맺어 절전제품을 보급하고 에너지 절약 방법을 교육하는 등 에너지절약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지속해서 에너지 절약운동을 통해 에너지 낭용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환경 및 건강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감사패를 받은 것 같다. 감사패에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

2015년은 성 의원에게 일을 익히고 의정활동의 방향성을 견고히 하는 해였다. 2016년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하나씩 진행하고 실현하는 과정의 ‘첫발’을 떤 해라고 할 수 있다.

시의원이 되고 스스로와 다짐한 게 있다는 성복임 의원. 그는 “1년에 한번은 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토론회를 열려고 해요. 토론회를 통해 문제점을 밝히고, 보완할 점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려는 거죠. 정책토론회 개최 등 생활정치를 지속해서 실천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시의회 단신

시의회 로비는 무료 전시장 문화예술 작품 상시 전시

군포시의회는 청사 1층 로비에서 4월 8일까지 '도자기 전시회'를,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는 군포수채화협회 주관의 '작은전시회'가 꾸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별 의원은 “시의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여러 장르의 예술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전시회를 유치해 시민들과 문화 예술로 더 가까워지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2015년부터 1~2층 로비를 전시장으로 꾸며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중이다. 그동안 시의회는 9회에 걸쳐 총 284점의 작품 전시를 유치, 시의회 방문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전시장으로 꾸며진 시의회 1~2층 로비를 무료로 대관하길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회사무과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의회사무과 390-87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경기도의회의원 보궐선거 안내

투표일 4월 13일 수요일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장소 주민등록상 지정 투표소

※ 보궐: 군포시 제1선거구 - 군포1·2동, 산본1동, 금정동, 대야동

※ 내 투표소 찾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 참조

‘사전투표’ 안내

투표기간 4월 8일 ~ 9일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장소 전국 어디나 가까운 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390-1726



청소년의 꿈을 펼쳐요!

꿈이지 군포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개소

3월 10일, 청소년과 함께 꿈꾸며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꿈이지 군포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꿈이지'는 꿈(Dream)과 쉬운(Easy)을 합성한 말로,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쉽고 즐겁게 꿈을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글 편집실 사진 꿈이지 군포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꿈이지 진로직업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이 치과 의사 체험을 하고 있다.

군포시가 청소년의 꿈

응원해요

군포시가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탐색을 지원하고자 꿈이지 군포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꿈이지)를 개소했다.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2층 '기씨(GYCE)' 내에 자리 잡은 꿈이지는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진로체험을 위한 기관·단체와 협력해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꿈이지는 자유학기제와 진로직업 프로그램,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진

로직업체험박람회 등 청소년의 꿈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기주도적 역량개발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꿈이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는 진로직업체험을 하고 싶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모두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프로그램별 시간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멘토와 함께하는 학과탐방' 등

프로그램 신청

현재 꿈이지는 멘토와 함께하는 학

과탐방과 멘토링 강연 프로그램에 참여할 고등학생을 각각 모집하고 있다.

멘토와 함께하는 학과탐방 참여자들은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학교 소개와 입시전형안내, 직업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4월 9일까지 꿈이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홈페이지(gpdreameasy.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탐방일은 4월 16일로, 오전 8시에 군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버스로 함께 출발한다.

이와 더불어 진행되는 멘토링 강연은 청소년수련관 2층 '기씨' 내에서 이달 9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하며, 이달 7

일까지 고등학생 60명을 모집해 운영된다. 학생들은 A~F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팀은 진로와 동기부여 주제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꿈이지가 매년 9월 개최하는 진로직업체험박람회는 군포지역 내 직업체험 제공 기관 및 동아리, 학과 등과 협력해 마련한 부스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에 대한 동기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군포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390-1426



청소년상담센터 직업인 특강

• 바리스타

일시 5월 12일 오후 4시

강사 양재석 대표(JM커피로스터스컴퍼니)

내용 바리스타의 업무 간단한 실습

• 뷰티 전문가

일시 5월 26일 오후 2시

강사 주동준 대표(청담동안 대표)

내용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는 법, 셀프 메이크업

신청대상 학교 밖 청소년(24살 이하)

신청일시 각 특강일까지

장소 청소년카페 Teen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90-1456

꿈에 엔진을 달아라 8기 모집

신청대상 학교 밖 청소년(16~24세)

신청기간 4월 14일

면접일정 4월 15일 오후 2시

운영일정 4월 18일 ~ 4월 22일(오전 10시~오후 4시)

내용 꿈엔진 집단프로그램(자기탐색, 진로, 놀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90-1454



시골벽적 인권놀이터 참가자 모집

대상 군포 지역 초등학교 4학년~6학년

내용 인권 감수성 함양 프로그램

(인권퀴즈 및 규칙만들기 등)

모집인원 15명~20명

신청기간 4월 1일 ~ 4월 26일 오후 6시까지

신청방법 선착순 / 방문, 팩스(398-7935)

E-mail(gjycc21@hanmail.net)

신청양식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www.gjycc21.or.kr) 참조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390-1485

‘장애인복지일자리’로 취업 사각지대 없애다

군포시장애인 종합복지관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군포시의 위탁을 받아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복지일 자리를 개발·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취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함이다.

복지일자리 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이라면 군포시 내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직업 훈련생 등이다. 주로 사서 보조, 급식 보조, 사무 보조, 환경정리, 실버케어, 건강검진센터 보조 등 12개 직무를 맡아 수행한다. 사업 참여자들은 장애인 일자리를



업지침 및 직업 소양교육을 수료한 후 주 5일(월 56시간)씩, 12월까지 근무하게 된다.

이와 관련 복지관은 지난 1월 '2016년 장애인복지일 자리사업 간담회'를 개최하며 사전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및 주의사항 교육, 근로계약서 작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참여형 일자리에 30명, 특수복지연계형 일자리에 4명이 선정돼 군포지역 내 11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편 복지관은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성공적 적응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도 시행한다. 4월에는 직장예절 교육, 업무 스트레스 해소 지원,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는 보수교육이 진행된다. 또 6월에는 근무 중 불편사항을 공유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에는 사업 수행 평가를 시행, 2017년도 계획 및 추진 방향을 보완할 것이라고 복지관은 밝혔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 방법 및 추진 일정 등을 더 자세히 알기 희망하는 시민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gunporehab.or.kr)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399-1085

2016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자

- 관리자 -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채용기간 동안 업무 수행 가능자
- 조사원 - 대상 사업체 방문, 조사표 작성 및 질의, 설명 수행 등 가능자

신청기간 4월 1일 ~ 4월 15일

방문접수 4월 11일 ~ 4월 15일 군포시청 3층 통계작업실

온라인접수 4월 1일 ~ 4월 13일

경제총조사 홈페이지

(www.ecensus.go.kr) 직접 등록

기획감사실 390-0357

‘착한가격업소’ 모바일 앱 안내

‘착한가격업소’ 모바일 앱을 통해 군포지역 내 17개 착한가격업소를 간단히 검색하거나 전국 6,800여 곳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역·업종 별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 인증을 받은 착한가격업소란 착한가격, 청결한 가게 운영, 기분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께 만족을 주는 우수업소다.

한편 착한가격업소 모바일 앱은 상세 검색 기능에서 각 업소의 가격, 배달 여부, 주차 여부 등의 정보까지 제공한다. 또 지도 서비스를 통해 내 주변의 착한가격업소를 거리순, 추천순으로 검색할 수 있다.

지역경제과 390-0267

‘은퇴금융아카데미’ 개최 안내

교육주관 한국주택금융공사

교육대상 은퇴 준비에 관심 있는 모든 분

교육비 무료

교육기간 4월 12일 ~ 5월 17일,

매주 화요일 3시간(오후 2시~ 5시)

교육내용 은퇴관련 경제금융지식 및 은퇴생활정보

*은퇴재무설계, 소득 및 지출관리, 금융범죄예방, 상속·증여관련 법률정보 등

교육장소 과천시민회관(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혜택 수료증 발급, 노후행복설계담당자와 개별상담제공 등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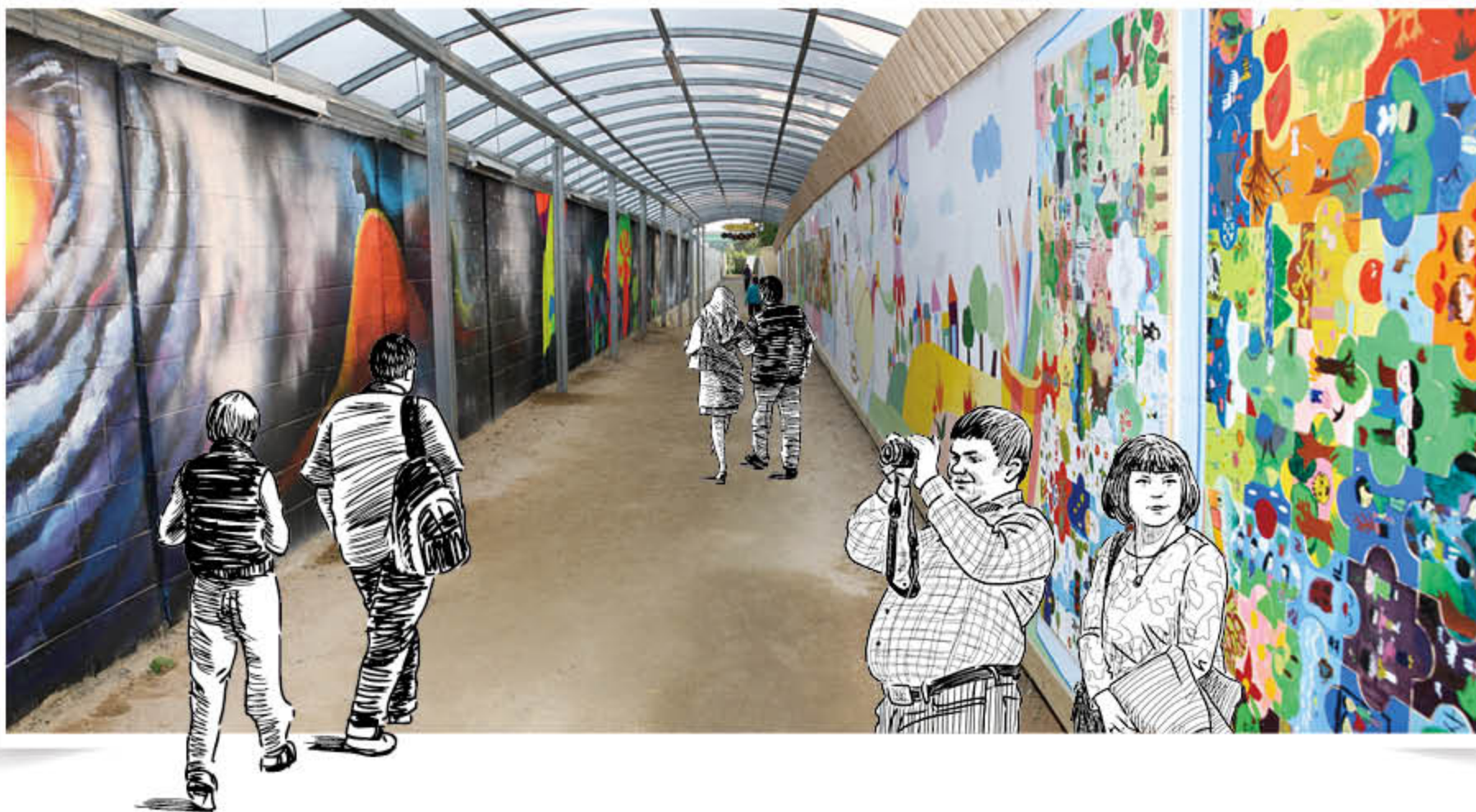
한국주택금융공사경기중부지사 031-478-7000

군포일자리센터 4월 추천 일자리



gyeonggi.work.go.kr/gunpo/main.do 390-0613

회사명	주소	사업 내용	모집 직종 및 인원	근무시간	임금	전화번호
(주)엠엘앤씨	군포시 군포로 484, 3층 (당동, MS빌딩)	검침, 고지, 안전점검, AS, 고객상담	고객상담원 2명 (군포 삼천리도시가스) 안전점검원 5명 (군포 삼천리도시가스)	평일 09:00~18:00 (휴일 순차근로있음) 평일 09:00~21:00 (근무일 탄력적 적용)	연봉 1,600만원 월급 127만원	010-8996-1041
(주)제이아그라	군포시 번영로 485 (산본동, 롯데피트니스)	음식도매 서비스, 프랜차이즈음식점, 프랜차이즈컨설팅	인디아 다이닝 레스토랑 직원 4명 (매장관리, 홀서빙)	10:30~22:30 (휴일, 시간 협의)	연봉 2,100만원	02-1800-7634
아이지원주식회사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A동 2104호 (당정동, 군포IT밸리)	RF 중계기 및 RF Module 개발 및 생산	RF Module 엔지니어 2명	평일 09:00~18:00	연봉 3,500만원	010-3019-9945
신성물류(주)	군포시 번영로 82, 한국복합물류 관리동 307호 (부곡동)	냉동, 왕카 전문 화물운송	총무사무원 1명	평일 09:00~18:00	연봉 2,400만원	010-2582-3000
주식회사이노하나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48번길 17 B동2008호 (당정동)	열가소성수지 제품 판매 개발	화학제품 관련 기술영업 3명	평일 08:30~18:00 토요일주 09:30~15:00	연봉 2,200만원	031-8059-0917
보라전기공업(주)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166번길 13 보라전기공업(주) (금정동)	파우더 브레이크 제조 및 판매	자재, 구매사무원 2명	평일 08:30~17:30	연봉 3,500만원	031-455-8183
(주)대림이앤씨	경기도 군포시 당정역로38번길 17 (당정동)	전문소방시설 공사, 소방시설관리, 방염, 안전관리대행	방재 및 소방관리 기술자 2명	주 6일 08:00~18:00	월급 150만원	031-451-8202
(주)에스오씨	군포시 한세로 48, 3층 (당정동, 남원빌딩)	네비게이션, 블랙박스제조	전자부품구매자재사무원 1명	평일 09:00~18:00	연봉 2,500 만원	031-427-1763 (내선번호 202)
아이메디칼(주)	군포시 엘에스로 172, 612호 (금정동, 한림휴먼타워)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판매, 제조	의료기기 조립/생산직 2명	평일 09:00~18:00	연봉 1,520 만원	031-479-1156



문화가 있는 누구나 걷고 싶은 길

골프장둘레길

어느덧 봄이 왔다. 겨우내 얼어있던 땅이 녹고 숨어있던 꽃과 풀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민다. 얼었던 땅이 기지개 켜듯 우리 몸에도 봄기운을 불어넣어 보자. 바쁜 일상에 지나쳤던 가까운 우리 주변에 가볍게 나들이하는 마음으로 도심 속 시민의 문화가 있는 골프장둘레길을 걸어보자.

글 최미연 사진 군포시청



도심 속 순환 산책로에서 힐링을

군포시는 지난 2014년 11월 기존 도심을 대표할 명품 산책길인 '골프장둘레길'을 완공했다. 둘레길은 당정근린공원에서 시작해 전철 1호선 철길(당정역-의왕역), 삼성천 구간과 신기천 꽃길 등을 거쳐 다시 당정근린공원으로 돌아오는 총 4.6km의 도심 속 순환산책로다.

시는 신도심과 비교해 휴양과 운동 공간이 부족한 기존 도심 주민을 위한 환경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둘레길 조성을 추진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용지 무상 사용과 안양컨트리클럽이 골프장 무상사용을 협의해주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또 군포복합화물터미널에서 철도변-삼성천 구간을 기부해주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한 가운데 사업이 시행됐다. 그 결과 시민 누구나 마음 편히 찾아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화 산책길, 골프장둘레길을 만들 수 있었다.

이곳에는 어린이 800여명이 참여한 그림과 지역 예술인이 참여한 군포 옛이야기 벽화, 문화예술이 취미인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된 시민갤러리 등이 있어 명소가 손꼽힌다.

뿐만 아니라 걷기 코스에는 서가, 덩굴식물원과 만남의 광장, 운동 공간, 대나무원 등의 편의 휴게 시설이 마련돼 있다. 이 가운데 덩굴식물원은 기념사진 촬영 및 생태교육 등의 장소로 인기가 높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더불어 걷기 코스 전역에 CCTV 6대를 설치해 시민들의 안전도 확보했다.

다양하고 건강한 문화의 향유도

골프장둘레길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개최돼 시민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다. 둘레길이 완공됐을 때를 기념해 '군포시민 한마음 걷기대회'가 개최된 바 있는데, 행사 참여자들에게 주최 측이 마련한 중식이 제공됐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 그리고 친구와 함께 참여한 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더해주기 위한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됐다. 이후 걷기대회는 매년 시행되고 있다.

또 사진전도 진행됐는데, 전시된 사진들은 군포에서 27년을 살아온 지역예술인 임효례 사진작가가 군포 8경 등 도심의 과거에 현재에 걸쳐 아름다운 모습을 틔움이 사진으로 찍어 남긴 기록이다. 이 사진들은 앞서 임 작가의 개인전이 끝나고 한 시민이 구매

했다가 '군포의 멋진 풍경을 공유하고 싶다'며 시에 기증해 공개 전시회가 이뤄졌다.

한편 군포문화재단은 지난해 둘레길에서 생활문화 동호회 회원들이 창작한 다수의 작품을 전시해 선보이기도 했다. 문화와 함께하는 휴식과 여가를 선물한 것이다.

이처럼 골프장둘레길에서는 누구나 아무 때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날 수 있다. 상설 문화 예술 작품부터 기획 전시 감상, 건강 걷기와 독서까지 둘레길에는 여유가 흐른다.

골프장둘레길이 많은 사람에게 휴식과 운동 공간을 제공하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기대받는 이유다.



평동! 어르신들의 정(情)이 찾아갑니다

군포시니어클럽 '실버택배'

매일 오전 9시쯤부터 군포시주무중합사회복지관 앞에서는 바쁜 하루가 시작된다. 어르신들 다섯 명이 유니폼을 갖춰 입고 택배 차량을 기다린다. 이윽고 차량이 들어오면 물건을 내리고, 각 동별로 배달해야 할 곳을 나누어 분류한다.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에도 주인을 기다리는 물건을 배달해 주기 위해 힘을 내는 실버택배 어르신들. 문을 열어주세요, 어르신들의 마음을 담은 택배가 찾아갑니다.

글 · 사진 최미연



실버택배는 상생 일자리사업

군포시니어클럽의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실버택배'는 지난 2008년부터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아파트 지역 내에 거점을 두고 택배 물품을 직접 배송하는 사업이다.

택배사로부터 물건을 인수해 배달지역 아파트 고객에게 직접 배송함으로써 거주 지역에 안전과 신뢰를 구축하고, 일하는 노인상을 지역주민에게 알린다.

다른 지역에서도 실버택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군포시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처음으로 택배 사업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군포시의 실버택배 거점은 한라, 계룡, 세종, 우륵, 주몽, 자이, 대림2차 아파트 단지로 당일 물량에 따라 배정 인원을 달리해 효율적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는 현대택배가 군포시 내 실버택배 거점으로 물품을 배달해준다. 시니어클럽은 현대택배와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어르신들의 꾸준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수요처 관리를 하고 있다.

실버택배는 상생사업이다. 택배회사는 소속 배달원들이 시간 소요가 많은 소규모 일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 인력 생산성 제고의 효과를 거둬 좋고, 어르신들에게는 용돈과 일하는 자부심을 얻는 제2의 직업이 생겨 좋다. 또 각 가정은 낮은 사람보다는 신뢰 가고 친근한 낮익은 이웃 어르신에게 물건을 받아 편안해서 좋다.

이처럼 실버택배는 사업 효과에서 큰 성과를 보이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택배 하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박춘서 어르신(71세)

벌써 6년째인데, 그중 제일 힘든 건 택배 물품 트럭 도착하는 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차량을 기다리다 점심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도 집에 있으면 할 것도 없고 지루한데, 여기 와서 돌아다니며 운동 삼아 일하다 보면 일단 시간을 보내고 걷는 운동이 되는 등 장점이 더 많아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택배가 힘든 줄 알고 신청하지 않아요. 택배 하겠다고 와서 하루하고 힘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일든 처음 하면 정신없고 어렵잖아요. 그래도 조금 지내면 요령이 생겨서 그런 데로 적응해요.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물건이 와서 택배 돌아다니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초보지만 마음은 배테랑/김태진 어르신(78세)

내가 개인택시 45년 하다가 몸이 아파서 6개월 쉬다 보니 그만두게 됐어요. 어느 정도 회복돼 집에서만 놀기가 싫어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니까 실버택배를 알선해 주더라고요. 난 초보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일이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없는데, 나이 잡수신 분들이 한다는 것은 정신력이 대단해야 할 것 같아요.

반품 요청하면 반품도 해줘야 하고, 여간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만약 택배 물품을 고객이 받지 못해서 분실되거나, 실수해서 반품처리가 잘못되면 내가 변상 처리해야 하는 것도 신경 쓰이죠. 아직은 정신없는데 차차 하다 보면 늘겠죠.

아침밥 먹고 갈 데가 있어 좋아/김진옥 어르신(79세)

택배 한지는 5개월 됐어요. 월급은 15만원 정도 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는 쉬고 오전에 2~3시간씩하고 있어요. 돈을 벌기보다는 이 나이에 일 할 곳도 없으면 어디서 무얼 하겠어요.

집에서 노는 것보다 나와서 활동하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아침을 먹으면 갈 데가 있거든. 아침 먹고 집에 누워서 텅굴고, 그렇게만 지내면 사람 꼴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료하게 시간을 보낼 바에야 용돈도 벌면서 시간도 알차게 쓰는 게 좋지 않겠어요?

택배 사고 없도록 가장 노력/김종구 어르신(68세)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실버택배를 하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전혀 들어본 적 없어서 가만있었더니 '젊어서 택배 하면 좋겠다'고 해서 여기 일을 하게 됐죠.

그런데 간혹 택배 장부 때문에 경비실과 마찰이 있어요. 택배 분실을 우려해서 적어놓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결국 배달한 사람이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죠. 택배 물품 배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몇 번 건의해봤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택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제일 많이 마음을 쓰고 있죠.

군포지역 내 거주 어르신 중 만 6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기초노령연금 수령 여부나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전화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군포시니어클럽 실버택배 454-2077

Interview

군포시니어클럽
실버택배 담당

김재순



실버택배 신청은 언제하나요?

중간에 편찮으시거나 그만두실 상황에 대비해 신청은 수시로 받고 있어요. 미리 상담을 통해서 대기자를 모집해놓죠. 또, 신청자에 한해 예비참여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드리죠. 예비참여 활동을 통해 어르신이 업무가 가능한지를 자신도 느끼고, 저희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참여자들은 집과 거점의 거리,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알맞은 거점에 배치하죠.

실버택배 신청 조건은 무엇인지?

실버택배는 1년 단위 사업이지만, 다년간 참여가 가능해요.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지 않은 한 연속 참여가 가능해요. 오로지 업무수행능력을 보고 선발하기 때문에 하시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해요.

개선할 사항이 있나요?

저희도 바라는 점인데, 어르신들이 수익을 많이 가져가셔야 하잖아요. 택배 회사랑 다시 협약할 때 급여 인상 부분을 논의할 계획이에요. 현재는 물품 건당 550원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수익창출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해요. 실버택배를 오래 지속해왔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급여를 확보, 어르신들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프레임에 담다

다문화주부클럽 '꿈꾸는 동행' 창단 전시회 개최



사진은 많은 말을 한다.
우리가 지나왔던 일상 속의
모습을 추억하고 싶다면
사진이 제격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담아
가슴 속에, 그리고 사진 한
장에 오래 간직하는 일.
우리 마음을 속속하게 적서를
매개체임이 틀림없다.

글 최미연 사진 김오늘

협한 길도 함께 가면 즐거워라

3월 7일부터 18일까지 군포시의회
갤러리에서 군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
터의 다문화주부클럽 사진교실 '꿈
꾸는 동행'의 창단전시회가 열렸다.

'꿈꾸는 동행'은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나가자는 의미로, 다문화주부 다섯 명과
군포시민 두 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아들은 사진작가 임효례씨의 재능기
부로 실기 수업을 받았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직접 촬영한 가족들의 사진
을 모아 '100일 동안의 사진일기'라는
주제의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다.

또 꿈꾸는 동행 회원들은 사진 전시
회가 정체성 혼란으로 공동체 의식 저

하 문제를 겪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에
게 공동체 의식과 자존감을 높여주며,
정서 안정과 성취감 고취를 기대하는
마음도 전시회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다문화주부클럽 한애숙 회장은 "이
번 전시회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의 폭을 넓히고, 지역사회 통합과 상
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이바
지했기를 바란다"며 "창단 전시를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된
회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임효례 사진작가는 "결혼 이주
민들이 낯선 땅에서 겪는 소통의 어려
움과 자국 언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알고, 그들이 가슴속에 간직한 언어를
사진이라는 세계 공통 언어를 통해 표
현하는 것을 도우려 재능기부 지도를
기꺼이 맡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진이 누군가의 가슴에 씨앗처
럼 떨어져 소중한 순간을 오래 간직하
게 하고, 일상 속 내면의 이야기를 예
술로 승화시킬 수 있기에 다문화주부
들을 돕는데 사진작가로서의 재능을
쓸 수 있어서 더 기뻐했다고 임 작가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꿈꾸는 동행 회원들은 사
진 수업에 참여하면서 잠재된 재능을
발견했고, 이번 전시를 통해 자신감과
적극성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내가 나누었던

사진이 누군가의

가슴에 씨앗처럼

떨어져 소중한 순간을

간직하게 된다.



다문화주부들의 행복한 동행

'꿈꾸는 동행' 모임은 사진 수업을 할
때, 매일 같은 프레임으로 같은 장소를
찍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이어 나와 가
장 친숙한 자신의 이야기와 우리 아이들
의 성장 일상을 카메라에 담고, 함께 나
누며 공감하기 시작했다.

이번 사진전에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출판한 문나탈리아(러시아) 주부
는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
었다. 문나탈리아씨는 "그간 한국에서
생활하며 낯선 문화와 생활에 힘들었지
만 꿈꾸는 동행을 통해 많은 사람과 소
통하게 돼서 좋았어요"라며 "특히 아이
의 즐거운 모습을 담을 수 있어 좋았고,
일상생활도 아름다운 순간이 많다는 걸

알았다"고 덧붙였다. 또 한은선(본명 다
비, 캄보디아) 주부는 "아이가 4살 때부
터 8살 때까지 모습을 담았어요. 점점
자라는 아이를 사진을 같이 보며 그날의
추억이나 즐거움을 공감한다"며 "내가
찍은 사진 한 장으로 삶이 한 스펀 풍성
해지는 것 같아요"라고 기쁜 마음을 드
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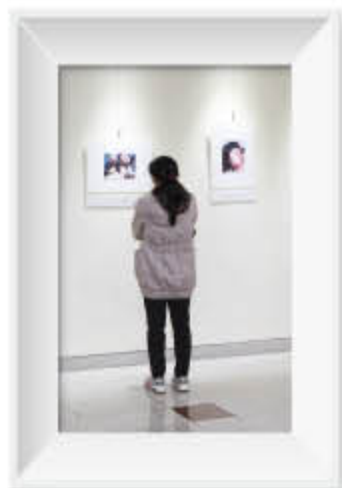
한편 다문화주부클럽은 '나와 내 이웃
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자'는 목표
로 지난 1983년 설립됐으며, 700여명의
회원이 다양한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실
천하고 있다. 때문에 연중 지역사회 구
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원하며, 다
문화가족 구성원들의 교육 등을 위해 팀

을 나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다문화주부클럽의 르노와르팀은 친정
부모 의형제 맺어주기 캠페인과 대학생
봉사를 진행하고, 어깨동무팀은 장애인
복지관 봉사를, 키다리아저씨팀은 독거
노인을 위한 반찬만들기와 다문화 풍물
패 공연을 맡고 있다.

그리고 페스티벌의 정원팀은 가족
봉사단 나눔 농장을 통해 독거노인 및
어려운 이웃돕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활
동 중이다.

이 밖에도 지난 2012년 다문화 가족
봉사단을 창단하고, 다문화어린이 합창
단 '햇빛과 다문화오케스트라'를 창단하
는 등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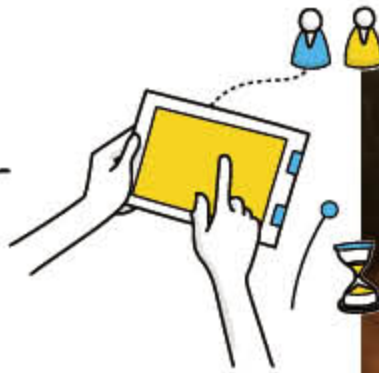


청소년의 꿈이 웹툰으로 태어나다

군포시평생학습원 웹툰창작체험관

웹툰이란 웹(web)과 카툰(cartoon)의 합성어로서 각종 멀티미디어 효과를 동원해 제작된 인터넷 만화를 말한다. 웹툰을 배워보고 싶은 청소년들이나 웹툰작가가 꿈인 청소년들 등을 위해 군포시평생학습원에 웹툰창작체험관이 마련돼 운영 중이다. 살아있는 듯한 인물을 창조해보며 상상력의 나래를 펼쳐보자.

글 편집실 사진 군포시 웹툰창작체험관



예술가와 함께 하는

웹툰 스쿨

군포문화재단 군포시평생학습원이 지난 2월, '2015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

웹툰창작체험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관한 '2015 웹툰창작체험관(Webtoon Lab) 조성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해부터 3천 500만원을 지원받아 웹툰창작체험관 'WAWA'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WAWA'는 Webtoon Academy With Artist 약자로 예술가와 함께하는 웹툰스쿨이란 뜻으로, 웹툰 관련 인재 발굴 및 역량 강화와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속적 웹툰창작프로그램으로 문화저변을 확대하고자 운영하고 있다. 웹툰스쿨은 군포시평생학습원 4층 컴퓨터실에 위치해 있으며 22인치 터치태블릿 13대와 웹툰창작프로그램 '스케치업', '클립스튜디오'를 13개씩 마련했다.

이 사업은 '와와스쿨', '와와타임', '와와클럽'의 세 가지 사업으로 각각 웹툰창작체험관을 상시적으로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창작 시간을 주고 있다. 또한 전문 강사를 통한 수업으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웹툰창작체험관으로 인식시켜 청소년들이 웹툰창작 동아리를 결성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웹툰창작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창작활동 이어가

웹툰스쿨은 총 7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웹툰스쿨에 참여하는 군포시 거주 청소년 초·중·고·대학 6학년 12명을 대상으로 '와와스'를 모집해 '와와시작'과 '와와스쿨', '와와특강', '와와타임', '와와체험', '와와파티'의 활동을 진행했으며 올해 3월부터 '와와클럽'의 활동을 추가로 진행하게 됐다.

와와타임은 와와스 12명의 학생들이 웹툰창작 프로그램과 태블릿에 빠르게 적응 할 수 있도록 총 11일, 4시간씩 총 44시간동안 창작 자율시간을 가졌으며, 한국만화박물관 견학을 통

해 웹툰창작에 대한 전문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어 만화의 과거와 현재를 한 눈에 보고 웹툰제작 체험을 통해 창작자로서의 마인드를 제고시킬 수 있는 와와체험 시간을 가졌다.

와와파티는 와와스쿨에서 배웠던 성과를 와와스 12명의 부모님 등 총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웹툰전시 열었다. 이러한 웹툰스쿨의 웹툰창작 과정을 마친 12명의 와와스 1기 멤버가 '와와클럽'이라는 웹툰창작 동아리를 창단해 웹툰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장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군포시평생학습원 390-3055



[생생 인터뷰]

“웹툰창작체험관으로 와와(WAWA)!”

군포시평생학습원
남현구 대리



웹툰창작체험관 우수기관 선정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재)군포문화재단 군포시평생학습원은 '2015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그런 만큼 군포시평생학습원은 체험관 구축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웹툰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웹툰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라면 웹툰창작관에 와서 함께 즐겨주시고 성장하는 웹툰창작관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체험관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는 동아리창단과 동시에 웹툰창작체험관을 개방 할 예정이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군포시평생학습원 4층 컴퓨터실에서 진행합니다. 일단 와와클럽 멤버를 중심으로 운영 할 예정이고, 2016년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일반시민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6년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빠르면 6월부터 와와스쿨 2기를 운영하게 됩니다.



웹툰창작체험관 운영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계획은 무엇인가요?

웹툰창작 워크숍 '와와시작'을 시작으로 웹툰창작 교육프로그램 '와와스쿨' 웹툰창작 성과공유회 '와와파티' 이 세가지를 정규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과정을 수료한 친구들이 웹툰창작 동아리 '와와클럽'으로 활동 할 예정입니다. 동아리는 기수별로 운영할 예정이며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창단할 예정입니다.



마음의 나이트게가 자라는 독서회

폭넓은 독서를 위한 시민 참여 독서회 활동 활발

미국의 시인 에즈라 파운드는 “우리는 힘을 얻기 위해 독서해야 한다. 독서하는 자는 극도로 활기차야 한다. 책은 손 안의 한 줄기 빛이어야 한다”며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는 것이 힘이고, 그 힘은 책에서부터 발현된다. 독서를 통해 간접경험을 하고, 자아를 찾으며 인생의 멘토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지혜와 행복, 지식의 보고를 넓혀주는 독서회 활동으로 마음의 공간을 채울 수 있다.

글 최미연 사진 군포시도서관

책 읽는 군포 만들어요

군포시 중앙도서관과 산본도서관, 당동도서관, 부곡도서관은 시민 독서회를 운영하며 ‘책 읽는 도시 군포’를 만들어가고 있다.

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이 주최해 독서회 6개와 장소대관을 통해 독서회 20개가 운영되며 총 322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책독서회와 나무인문학이 있으며 초등 1~2학년 대상의 꿈자람독서회와 초등 3~4학년 대상의 책가방독서회, 초등 5~6학년 대상의 꿈이름독서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인문독서 멘토링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독서회, 명작독서회, 독서토론회

임, 영어책읽기 모임 등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다양한 독서 활동을 하고 있다.

산본도서관 독서회

산본도서관 독서회는 총 14개가 운영되고 있다. 독서회 회원들이 토론을 하며 진행되는 독서회는 11개,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되는 독서회는 3개가 운영 중이다. 독서회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문학과 역사, 철학을 주제로 진행되고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아동문학 주제의 독서회도 진행된다. 특히 실버독서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독서와 토론 학습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산본도서관 390-8842

부곡·대야·어린이도서관 독서회

총 5개의 독서회가 운영되는 부곡·대야도서관은 각각 월 4회, 월 2회의 정기모임을 가지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문학 토론학습과 강의식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야도서관은 책꾸러기 모임으로 문학 도서를 읽고 토론하는 강의식수업이 월 4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책을 사랑하는 모임의 독서회를 월 2회 가지며 아동문학에 대한 토론과 초청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부곡도서관 390-4081

당동도서관 한마음독서회

한마음독서회는 지난 2000년에 시작해 매달 2, 4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당동도서관 1층 문화교실에서 10명의 회원들이 참여한다. 문학뿐만 아니라 사회, 역사 등 분야별 다양한 도서를 직접 선정해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다. 한마음 독서회는 2월과 7월에 신규회원 모집을 하고 있다.

당동도서관 390-8812



군포시 도서관의 4월 추천 도서



미역은 범인을 추리하면서 벌어지는 사골 벅직한 사건 속에 묵묵한 우정, 부모와의 소통, 타인에 대한 이해, 편견에 대한 반성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실 뿐만 아니라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너머의 전반적인 역사적 흐름, 숨겨있던 역사 속 인물의 감정을 그리고 있다.



라이프 세이버(SAVERS)라고 부르는 아침 6분 투자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여섯 가지 아침 습관을 소개한다.

이달의 도서관행사

대야도서관 휴관(개보수) 안내

- 휴관기간
4월 18일 ~ 6월 19일(63일간)
- 이용안내
도서대출서비스 4월 17일까지
상호대차서비스 4월 13일까지
희망도서신청 4월 4일까지
내생애첫도서관 4월 17일까지
※휴관 이후 반납도서는 도서무인반납기에 반납

대야도서관 390-8672-4

찾아가는 실버문화교실

참여 경로당 모집

산본도서관은 우선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실버문화교실’ 참여 경로당을 모집한다. 올해 말까지 매일 진행될 ‘찾아가는 실버문화교실’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추억의 영화 상영과 큰 글씨 도서 대출, 전래동화 구연과 전래놀이로 진행된다. 상세 일정은 프로그램 신청 경로당과 협의 후 확정되며, 더 상세한 정보는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와 보육기관 등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파견 독서지도는 6월부터 10월까지 수시(총 320회 예정) 시행되며,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7월과 8월 총 8회 운영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시 홈페이지(www.gunpo.go.kr) 등을 통해 공지되며,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신청은 산본도서관에 전화로 가능하다.

산본도서관 390-8842

‘어린이도서관연구회’ 회원 모집

산본도서관 어린이도서관연구회는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읽히자는 뜻으로 어린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으로, 이달 12일까지 17기 회원을 모집한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산본도서관 2층 작은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되며 어린이 책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아이와 동반도 가능하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어린이도서관연구회장과 교육부장으로 전화할 수 있고, 홈페이지(www.childbook.org/new3)를 통해 알 수 있다.

어린이도서관연구회장 010-8014-0779

집에서 잠자고 있는 헌책에 생명을 주세요! 군포시민 헌책 장터(벼룩시장) 운영

군포시는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책을 교환하고 판매할 수 있는 책 장터를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산본도서관 옆 중앙공원에서 운영한다.

4월 벼룩시장은 4월 9일, 16일, 23일,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며 우천시 휴장된다. 헌책을 교환, 판매하고자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그림책, 만화책, 일반도서, 전집 등 도서관관련물품은 모두 판매할 수 있다. 시는 매월 신청자를 모집하며, 당일접수도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도시 전체를 책으로 채우고 시민의 마음까지 책 내용으로 채우기 위해 헌책을 사고팔고 교환하는 시민 헌책 장터를 운영해 책나라 군포를 조성하고자 진행된다. 천막 설치 후 벼룩시장 형태로 시작하게 되며 추후에 상설 헌책 장터 및 판매 부스를 추가 운영 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군포시도서관 홈페이지(www.gunpolib.or.kr) 문화

행사접수란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군포시산본도서관으로 하면 된다.

군포시산본도서관 390-8841

청소년동아리 'B-Fly' 4주년 콘서트

일시 4월 9일 오후 6시 ~ 8시

장소 군포시청소년수련관 4층 청소년극장

대상 당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동아리 B-Fly

내용 청소년동아리 공연(노래, 랩, 댄스 등)

인원 약250명

문의 당동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참조 (www.ddyouth.or.kr)



군포나눔미학교 수강생 모집

일시 4월 1일 ~ 4월 30일

장소 군포시평생학습원 및 군포시여성회관 등

대상 일반시민(강좌에 따라 수강대상 제한가능)

내용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가르치는

재능 나눔 문화공동체

수강료 무료(재료비 별도)

신청 네이버카페 군포나눔미학교

(cafe.naver.com/gpnanumi)

문의 (재)군포문화재단

시민문화팀 390-3071~3

☆ 수요일영화산책 ☆



4월 20일
나를 찾아줘(2014)
주연 벤 애플렉
등급 청소년 관람불가



4월 27일
노들담의 꿈(1956)
주연 안소니 퀸, 장 다네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4월 12일
허삼관(2015)
주연 하정우, 하지원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시간 오후 7시



4월 6일
개를 흔치는
완벽한 방법(2014)
주연 김혜자, 이예,
최민수
등급 전체 관람가

군포생동감 2016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모임

2016

군포 생·동·감

생활문화동호회
여기로 모여라!



청소년다문화이해프로그램 '다.다.다' 참가자 모집

- 대상 군포관내 재학중이거나 거주하는 중1~고2 청소년 15명
- 내용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아웃리치활동 등
- 신청일시 4월 1일~4월 26일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선착순접수 / 방문, 팩스 및 이메일 (gjycc21@hanmail.net)
- 신청서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www.gjycc21.or.kr) 참조
- 문의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390-1483

2016 시크릿 주주-시크릿플라워 댄스파티-

- 일시 4월 2일 오전 11시 / 오후 2시 / 4시
- 장소 수리홀
- 장르 뮤지컬
- 관람시간 60분
- 관람연령 24개월 이상(*기준일 2014.5.2 이전출생)
- 공연요금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 문의 으뜸기획 031-258-9053

뮤지컬 '오케피'

- 일시 4월 15일 오후 8시
4월 16일 오후 2시 / 7시
4월 17일 오후 2시
- 장소 수리홀
- 출연 황정민, 오만석, 윤공주, 린아 등
※캐스팅스케줄은홈페이지참고(www.gunpoart.net)
- 관람시간 170분(인터미션 포함)
- 관람연령 8세 이상 (미취학아동 입장불가)
- 공연요금 R석 100,000원 / S석 80,000원
- 문의 군포문화예술회관 390-3500~2

브런치클래식 '문화살롱' I. 영화를 만나다

- 일시 4월 21일 오전 11시
- 장소 수리홀
- 출연 지휘-장윤성, 해설-정준호, 피아노-김재원
군포프리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 관람시간 70분(인터미션 없음)
- 관람연령 8세 이상 (미취학아동 입장불가)
- 공연요금 일반석(전석) 15,000원
- 문의 군포문화예술회관 390-3500~2

Rock & 樂 Concert Vol.14 스탠딩 에그

- 일시 4월 23일 오후 7시
- 장소 철쭉홀
- 장르 대중음악
- 출연 스탠딩 에그
- 관람시간 90분(인터미션 없음)
- 관람연령 8세 이상 (미취학아동 입장불가)
- 공연요금 전석 40,000원
- 문의 군포문화예술회관 390-3500~2

왜 책을 읽는가

신원섭 | 수리동



나는 일주일에 한 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 그리 많지 않은 권수일지는 모르겠으나 십 수 년 간 꾸준히 하고 있으니 감히 독서애호가라고 자처한다. 그런데 왜 책을 읽느냐는 질문에는 선뜻 답을 못해 온 게 사실이다.

며칠 전 아침 산책길에 스스로 똑같은 질문을 던져 보았다. 그 때 중얼거렸던 생각이 바로 "독서는 너머 세계를 보기 위함"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드리우는 그림자"라고 말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대개 보이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그러나 반대편 얼굴에 잡티가 있는 사람을 한 쪽에서만 보았다면, 그의 참모습을 보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시각각으로 접하는 술한 사건들도

그 이면을 알지 못하면서 진정한 팩트(fact)라고 부를 순 없지 않은가.

세상에는 무수한 허구와 진실이 난무한다. 숨겨진 허구와 조작된 진실을 밝혀려면 그 너머를 볼 줄 알아야 하리라. 독서는 너머 세계를 볼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자 수단이다. 그것도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시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너머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뛰어난 효용가치를 자랑한다.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다. 머지않아 봉오리마다 꽃이 피고 나무들은 싹을 드러낼 것이다. 그런 만큼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림자가 드리울지 모른다. 그럴 때마다 나는 또 책을 펼칠 것이다. 책에서는 너머가 보이니까.



푸른 봄소식

김영준 | 금정동

희망과 설렘 속에
목련화 하얗게 웃던 날
개나리는 노랗게 달려와
봄바람 되어 날린다.

온천지 초록이 되어
소리 지르던 아이들은
발걸음 빠르게 뛰어가면서
두 볼 발그레하게 웃어본다

맑은소리 밝은 풍경들
나뭇가지마다 물오른 소리
수리산의 푸르름은 머지않아
우리 삶을 빛나게 하겠지



<군포소식>이 시민 원고를 기다립니다.

참여대상 군포시민 또는 군포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누구나

제출방법 이메일 gunpo-city@nate.com, 매월 접수

원고분량 150자 이상, 900자 이내(글자 10포인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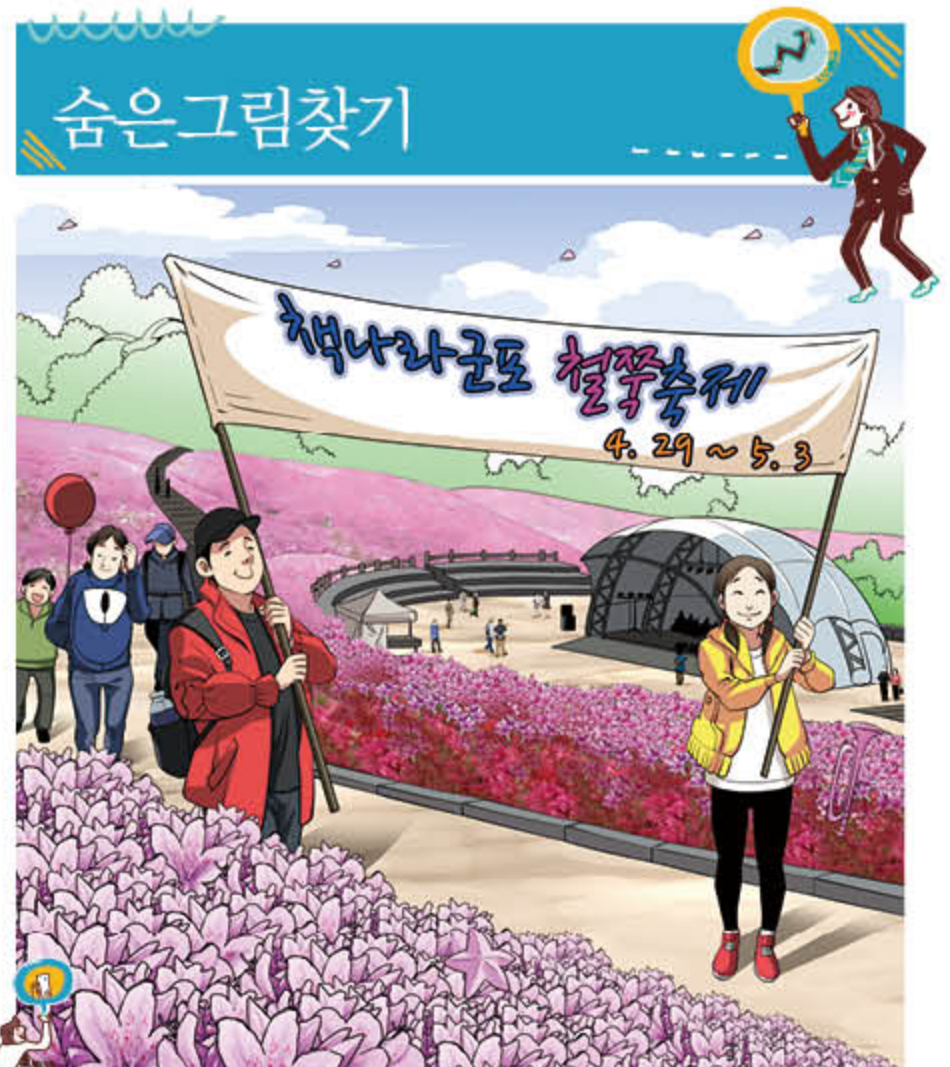
첨부내용 원고, 기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진(게재를 원할 경우)

- 원고가 채택된 기고자에게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접수된 기고가 모두 게재되지는 않으며, 지면 사정에 따라 분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많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고 접수에는 내부 규정(연속 기고 제한, 최소 6개월 내 재기고 지양)이 적용 됩니다.

문의 군포시청 홍보실 390-0663



숨은그림찾기



숨은그림 갈매기, 마우스, 사탕, 불가사리, 페인트 붓, 나팔, 8분음표

수수께끼 군포시진로직업체험센터의 이름은 'OOO'다. ☞ 6면 참조

정답제출 숨은그림과 수수께끼의 정답 표기 후 사진 촬영해 4월 21일까지,

군포시 페이스북(facebook.com/gunpocity)을 방문해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다섯 분을 추천해(페이스북 공지)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상품권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동의

-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 : 당첨시 본인 확인 및 상품권 배송
-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보유 후 파기

동의함 ☐
동의 안함 ☐

팬플룻의 울림으로 시민의 마음을 울리다

셀레스트 팬플룻 앙상블

언제나 초록의 싱그러움을 안고 있는 팬플룻의 소리가 마을을 속속하게 적신다. 군포 셀레스트 팬플룻 앙상블은 지난 2012년 창단돼 군포시는 물론 경기도 광주, 경북 안동 등에서 연주회를 하며 이름을 알리고 있다. 팬플룻은 최고 음역의 관악기로, 아름답고 청신한 음색을 지녔으며, 파이프 오르간의 가장 오랜 조상인 셈이다.

글 최미연 사진 주효상



대나무의 울림 소리, 영혼을 적시다

셀레스트 팬플룻 앙상블은 음악을 전공하고 군포시와 안양, 의왕시에 거주하는 현 음악 선생님 17명이 모여 활동 중이다. 셀레스트 팬플룻 앙상블 강혜숙 단장은 “음에 따라 관 아동을 하고 음의 위치가 보이지 않아서 관을 찾아가면서 소리를 내는데 처음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연습하면 깊은 소리의 울림을 느낄 수 있다”며 “대나무에서 울리는 소리에 매료돼서 깊게 빠져드는 악기가 팬플룻”이라고 설명했다.

셀레스트 팬플룻 앙상블의 단원들 모두 팬플룻이 가진 소리에 매료돼서 꾸준히 연습하고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활동하고 있다. 또한 팬플룻은 복식호흡으로 하는 비브라토와 손의 움직임으로 하는 비브라토를 이용해 다양한 매력을 뽐낸다. 이 때 비브라토를 통해 나오는 대나

무의 울림과 마지막 음에서 이끌어 나오는 소리가 멋스럽다. 팬플룻으로 곡을 자유롭게 연주하고 자연스럽게 고급스러운 비브라토를 할 수 있기까지는 2~3년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때문에 연주반은 주 2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연습시간을 갖고, 초보자반은 매주 목요일에 연습시간을 가지며 실력을 향상하고 있다.

팬플룻 오케스트라로 저변 확대 할 것

셀레스트 팬플룻 앙상블은 다양한 연주회를 통해 실력을 견고히 하며 재능기부 활동도 하고 있다. 작년 군포시 생동감 공연에서 연주를 하는 한편, 시민자치대학 인문학 강의에서 초청 연주를 진행했고, 경기도 광주 문화의 날 초청 공연을 하는 등 군포시 생활문화동호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혜숙 단장은 “연주회 활동에서 그치

지 않고 팬플룻의 저변 확대를 위해 팬플룻 오케스트라 창단을 목표하고 있다. 현재 17명이지만 30명까지 모집해 팬플룻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더욱 많은 공연으로 시민들을 만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셀레스트 팬플룻 앙상블은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고자 군포시 G샘 병원과 양지의 집, 수원 자애학교 등 장애학교와 복지관, 병원 등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오는 5월 7일, G샘 병원 환우들을 위한 공연과 같은 달 21일 샘물 병원 호스피스병동에서 연주회, 8월 안동산사음악회 등의 연주회가 예정돼 있다.

한편, 셀레스트 팬플룻 앙상블은 군포, 안양, 의왕에 거주하는 아동과 청소년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군포, 안양, 의왕에 거주하는 초·중학생과 중학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응모원서를 작성해 셀레스트

팬플룻 앙상블 강혜숙 단장에게 이메일(kjhs4338@naver.com)로 신청할 수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연습을 하게 되며 참여자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을 적용해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및 포상금, 기관장상 등이 수여된다. 기타 문의는 강혜숙 단장(010-9459-6251)에게 하면 된다.

‘하늘빛’이라는 의미를 담은 셀레스트 팬플룻 앙상블의 음악이 멀리 하늘까지 닿아 푸른 소리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생활문화동호회 교류와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군포시의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군포생동감’(군포의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함께 느껴요)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호회 및 시민은 군포문화재단(031-390-3071~3)에 문의하면 된다.

군포시노인복지관 효사랑 공모전

군포시노인복지관은 4월 15일까지 ‘효사랑 공모전’을 개최한다. 누구나 참여가능 하며 공모 주제는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효 문화’, ‘어르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세대간의 하나됨’ 중 택하면 된다. 공모분야는 성인은 사진과 수필에 응모할 수 있고, 그림은 아동과 청소년이 응모 가능하다. 사진은 컬러와 흑백 등 자유 형식이며 수필은 글자크기 10포인트, A4 용지 1~3장까지 제출할 수 있다. 그림은 8절지에 물감, 색연필 등으로 그리며 형식은 자유다. 공모 작품은 군포시노인복지관 홈페이지(www.gpbokji.org)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gpbokji@nate.com)로 접수하거나 군포시노인복지관으로 내방 혹은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그림은 내방이나 우편접수만 가능하다.

군포시노인복지관 399-2270

주소 군포시 고산로 223 군포시노인복지관 공모전담당자 앞

오금동, ‘효 실천’ 장려로 행복마을 만들기

오금동 주민센터가 효 문화를 장려하고,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 효 실천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거주 또는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모집, 3월부터 매월 1회(첫째 토요일)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 말벗 및 청소봉사 등을 시행하는 ‘효 실천의 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오금동은 ‘효 실천의 날’ 운영 당일 경로당 봉사 전에 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간략하게 전통 예절과 안전문화 교육 등을 시행, 실질적 효 문화 확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오금동은 더 많은 청소년이 효 실천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각각 50명씩을 선발, 5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하반기 효 실천단 참여에 대한 문의는 오금동에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금동 주민센터 390-8516

4050드림스쿨 군포생태농부학교 모집

일시 4월 7일 ~ 6월 30일 오후 7시~9시
(12주/실습 및 현장체험)

장소 군포시평생학습원,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소농학교 교육장

대상(정원) 40~50대 누구나(25명)

내용 귀농철학, 마을공동체이해, 귀농자와의 만남, 귀농사례, 주거관련 및 생활기술(생태건축시공 집고치기), 귀농과 건강 워크숍 등

접수 선착순

수강료 45,000원(*현장체험비 별도)

문의 군포시평생학습원 390-3050~8

봄철,

어린이 건강을 지켜주세요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 등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온다. 이러한 외부 환경으로 인해 아이의 건강이 걱정스럽지만 한 엄마들을 위해 우리 아이가 알기 쉬운 질병과 증상을 공부해 두어야 할 때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열이나 몸살 증상 없이 맑은 콧물과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고 눈과 코 주위 가려움증을 느끼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의심해야 한다. 영유아의 경우 중이염, 축농증 등 합병증으로 진행되기 쉽고 재발 위험이 높아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공기 중 미세먼지와 꽃가루 등이 눈의 결막에 닿아 염증이 생긴다. 아이가 눈을 비비고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고 눈곱이 자주 끼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의심해야 한다. 결막염이 진행될수록 눈에 통증을 느끼고 눈 주위 피부가 붉게 올라올 수 있다.

모세기관지염

만 2세 이전의 영유아에게 잘 나타난다. 처음에는 감기 증상을 보이다가 점차 기관지 천식이나 폐렴 증세로 변해간다. 아이가 숨 쉴 때 가르릉거리거나 가슴에서 쌉쌉 소리가 나면 모세기관지염을 의심해야 한다.

봄철 어린이 건강관리법

- 입고 벗기 편한 외투를 걸쳐 몸이 춥거나 덥지 않도록 조절해 주세요.
- 손 씻기와 이 닦기를 철저히 하도록 해요.
- 봄나물, 싱싱한 채소와 과일 등 영양섭취를 해요.
- 적당한 운동을 하고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휴식을 취해요.
- 물을 자주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고 적당한 실내 습도(40~60%)를 유지해요.
- 황사가 있을 경우 황사 바람에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긴소매를 입고 황사마스크를 착용해요.
-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잘 씻고 소금물로 양치하듯 입안을 행궈내요.

어린이와 성인의 봄철 질환을 위한,
밀피유나베

봄철에는 호흡기 및 안구 질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봄이라고해서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다. 밀피유는 불어로 '천 겹의 잎사귀'라는 뜻이다. 조리방법은 간단하지만 모습은 화려한 밀피유나베로 봄철질환을 예방해보자.



재료 - 소고기 등심(샤브용), 배추, 깻잎, 팽이버섯, 콩나물, 표고버섯 3개, 대파, 양파, 고추, 다시마 2장, 자투리 야채, 국간장 2숟가락반, 설탕 1숟가락, 치킨스톡 약간, 물 1.8L

양념 - 진간장 5숟가락, 다진 마늘 1/2숟가락, 레몬즙 1숟가락, 포도씨유 1숟가락, 설탕 1/2숟가락, 다진 홍고추 1/2숟가락, 다진 풋고추 1/2숟가락, 다진 양파 1숟가락, 청주 1숟가락, 후추

조리방법

- ① 냄비에 물(10컵)과 국물용멸치(2줌), 다시마15x15(1장)을 넣고 팔팔 끓인다.
- ② 다시마는 건지고 7분 더 끓여 멸치 다시마 육수를 만든다.
- ③ 멸치를 건져내고 다진마늘(1큰술), 국간장(2큰술), 소금(약간)으로 간을 맞춘다.
- ④ 배추, 깻잎, 팽이버섯, 콩나물, 표고버섯을 씻어놓고 배추, 깻잎, 소고기 순서로 겹쳐 쌓는다.
- ⑤ 냄비에 콩나물을 깔고 팽이버섯과 ④번의 재료를 넣어 육수를 붓고 끓인다.
- ⑥ 완성된 밀피유나베를 레몬간장 소스에 찍어먹는다.

2016년 상반기
대사중후군 건강교실 운영

기간 4월(매주 금요일 오후 2시~3시)

대상 만 30~64세 대사중후군에 관심 있는 군포 시민 50명

장소 산본보건지소 3층 대교육실

신청방법 선착순 전화접수 390-8969, 8979

교육일정

일자	주제	강사
1주 (4월 1일)	잡자! 대사중후군	가정의학과 전문의
2주 (4월 8일)	특별한 밥상 건강한 식생활	임상 영양사
3주 (4월 15일)	대사중후군 근력만이 살길이다!	전문강사
4주 (4월 22일)	내 마음의 소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구강보건교육 안내

기간 연 중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 오후 2~3시)

대상 관내 주민

장소 산본보건지소 2층 구강교육실

내용 ① 구강보건교육 영상 시청

② 악치모형을 통한 칫솔질 교육 및 불소 겔 도포

③ 불소용액 배부

신청 방문예약(산본보건지소 2층 구강보건실) 및 전화예약 390-8928, 8968

치매예방교육(치매조기발견교육)

일시 4월 6일(수) 오전 10시

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장소 산본보건지소 3층 대교육실

내용 치매란, 정의, 원인, 예방활동 등

접수 치매상담실 390-8975

치매선별검사(기억력검사)

일시 매일

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장소 산본보건지소 2층 치매상담실

방법 1차 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소독기준 확인 후 병원 정밀검사 의뢰

문의 치매상담실 390-8984

우리아이 건강간식 요리교실

기간 4월 21일 오전 10시

대상 미취학아동 보호자

장소 산본보건지소 3층 영양교육실

내용 우리아이 건강간식 만들기

신청 선착순 전화접수

산본보건지소 390-8926